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5, Vol. 5, No. 1, pp. 145~146

<토론1>

“과학영재교육 체제정립”에 대한 토론

김 하 진
(아주대학교)

주제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몇가지 소견을 개조식으로 적기로 한다.

1. 과학 영재 육성의 당위성

- 고도의 논리적 사고와 빠른 논리적 연결 고리를 필요로 하는 수학이나 정보과학은 19세 이전에 영재임이 입증되고 25세 이전에 탁월한 업적이 나와야 하고 35세 이후는 업적을 기대하기 어렵다(예. Field 상).
따라서 영재교육의 대상을 유치원 교육까지 확장해서 고려해야 한다.
- 영재교육은 세분화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수학, 과학 전분야의 영재는 영재가 아니다(다 잘한다는 것은 다 잘못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분야에 남다른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를 5~6세때 발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국제의 과학영재 교육 현황

- 국내 영재교육이 갖는 제일 큰 숙제는 교육의 결과를 균등히 고려하기 때문이다. 교육에는 기회의 균등은 강조할 수 있으나 결과에는 객관적인 차별화로 평가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
- 영재교육에 참가할 교원들은 그 중 자신이 영재이거나, 옳어야 한다. 영재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대우가 필요하다.

3. 국외의 과학영재 교육 현황

- 연구의 대상이 주로 미국의 영재교육인데 우리나라의 실정과 흡사한 유럽의 영재 교육 제도나 체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쉽다.

4. 과학 영재 교육 체계 점검 방안

- 우수한 교원의 획득을 위해서는 연수 시스템의 개선 보다는 긍지를 갖고 봉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과학 영재 교육을 전담하는 전담기구의 설립.
- 과학 올림피아드 출전 대표 학생의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적인 정보 수집, 교육 시설등을 다루는 전담기구 설립.